

관광회사들 입찰 때 새차...출발때 헌차

수학여행 버스 바꿔치기

전세버스업체 차량등록증 위조도

본격적인 소풍·수학여행철을 맞아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여행사 및 전세버스업체 간 입찰경쟁이 과열되면서 각종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전세버스업체들은 입찰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버스 연식을 최신형인 것처럼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는 불법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대형 사고 발생시 실제 학생들의 탑승버스와 계약버스가 달라 보상 분쟁의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 북구 D 관광여행사와 R 전세버스업체는 이달 초 광주시 모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수학여행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2007년형과 2008년형 생산된 신형 버스 8대를 배정하겠다고 공동 제안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다.

해본 결과 각각 2003년과 2004년에 생산된 버스의 차량등록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최근 3년간 광주지역 초·중·고교 30여 곳의 수학여행 위탁업체 업체로 선정돼 8천145명의 학생을 수송했다.

R 전세버스업체 K 대표는 "차량등록증을 위조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말하면서도 "이날만 해도 3곳의 학교에 수학여행 차량을 배차했지만 모든 학교가 신형 차량만 선호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다른 차량을 배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차량 바꿔치기 행위는 비단 한 업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광주시 동구 A 여행사에 근무하는 K씨는 "내가 일하는 업체에서도 지난해 제안서 서류를 위조해 입찰에 참여하

기도 했다"며 "여행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 "초·중·고교의 수학여행과 소풍이 4~5월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지만, 차량은 한정된 데다 기름값까지 전정부지로 올라 사정이 어려워 전세버스업체가 고육지책으로 입찰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수학여행 위탁업체들이 업체 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후한 점수를 얻기 위해서 차량 연식을 위조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세버스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11년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들은 차량 연식을 선정의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연천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시 북구 R 전세버스업체가 광주시 모 초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업체 선정 제안서에 첨부한 광주7X바 1XX0호 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사진 아래). 이 사본에는 2004년형 버스가 2008년형 신형버스의 것처럼 위조(붉은 선 안쪽) 있었다. 사진 위는 구형에서 발급받은 정상적인 자동차등록원부.



이주민 한마당 잔치

27일 광주시 광산구 문화회관에서 열린 '이주민 공동체의 날'에서 전통복장을 차려입은 베트남 여성들이 베트남 전통 춤인 '모자 춤'을 추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성빈여사' 원생 폭행 있었다

前 원장·사무국장 등 수사 마무리...검찰 송치

광주동부경찰은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의 고발된 아동복지시설 '성빈여사' 관계자 12명에 대해 원생들을 폭행한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아동기관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성빈여사 남모(여·56) 전 원장과 안모(여·44) 사무국장, 생활지도원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원생들의 진술서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5개월간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 전 원장은 한 차례, 사무국장은 세 차례, 생활지도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동안 남 전 원장을 제외하고 사무국장과 지도원들에게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으나 재조사 지휘를 받고 다시 수사를 진행했다.

성빈여사 남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생활지도사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한 원생의 제보를 받고 지도원 15명 을 상대로 자술서를 받아 이중 10명

에게 자술서를 요구하고, 새 지도사를 채용했다.

이에 해고된 생활지도사들은 남 전 원장이 '사적인 이유로 마찰이 있던 지도사들에게 아동학대라는 누명을 씌워 부당해고했다'며 원장 퇴진과 공개사과, 원직복직 등을 요구해왔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동학대와 부당해고 공방은 계속됐고, 이 과정에서 예산삭감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으로 갈등이 깊어져 시민단체들은 지도감독기관인 광주시와 동구청, 운영주체인 YWCA의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천주기자 ahj@kwangju.co.kr

나원침 (7492) 김장두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본점 : 061) 337-0571

나체 상태 경찰까지 폭행 '만취 난동'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탄 30대 승객이 택시기사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행인, 경찰관 등을 모두 때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30)씨는 27일 새벽 6시30분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친구 3명과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북구 운암동 모 아파트에서 내려 택시기사 배모(44)씨를 때렸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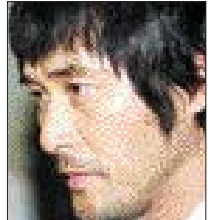
○A씨는 또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행인 이모(33)씨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운암지구대 경찰관 3명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직장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짓을 저지른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최민수씨 노인 폭행

흥기 사용 확인 안돼



찍혔을 뿐 최씨가 흥기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변 목격자 진술로도 흥기 사용 여부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새로운 목격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후 최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상근예비역 추락사

27일 새벽 5시에 강진군 강진읍 한 4층 원룸 앞길에 오토(21·강진군 강진읍) 상병이 숨져 있는 것을 행인 최모(여·48)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육군 31사단 상근예비역인 오 상병은 전날 부대에서 퇴근해 친구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옥상 난간 외벽에서 족적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오 상병이 추락사 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박진표기자 lucky@

영화배우 최민수(사진)씨의 노인 폭행·위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사건 현장 주변의 CC(폐쇄회로)TV를 분석했으나 최씨의 흥기사용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는 최씨와 피해자가 함께 차 안에 있는 모습만

(주) 조이트레블

대표전화 (062) 234-3222

팩스 (062) 234-3111

기쁜소식 조이트레블 특가!!

현재가 10월 20일 ~ 10월 25일

305,000

일본 - 여행정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일본여행

329,000

399,000

349,000

629,000

429,000

399,000

상당수 여행자가!!

1. 이태리 입국 8일 1,490,000

2. 서유럽 5개국 11일 2,690,000

1. 대만 / 야류 / 화롄 4일 619,000

2. 대만 / 야류 / 화롄 4일 634,000

062-333-8800